한 영혼의 소중함을 붙잡고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세상 속에서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며, 봉사하는 것이다."

옥한흠 목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말했다. 그리고 제자훈련이야말로 그 교회의 존재 이유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제시했다. 제자훈련이 성경적 목회철학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리고 소중한 한 영혼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청주 꿈이있는교회를 담임하는 반기성 목사는 바로 이런 제자훈련 목회철학에 의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해 온 사람이다. 그가 섬기는 꿈이있는교회는 현재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이제 막 개척 단계를 벗어났다. 그러나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회는 20여 명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던 개척교회였다. 꿈이있는교회가 2년 사이에 이처럼 놀라운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사람을 키우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반 목사가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키운 사람들은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어린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 장년 목회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반 목사는 "우리 교회에 와서 보라"고 대답한다. 세상을 방황하던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인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제자훈련을 하여 오늘날 놀라운 기적을 이룬 청주 꿈이있는교회를 소개한다.

양들은 하나님이 보내신다

반기성 목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7년이었다. 반 목사는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중고등부 사역에 남다른 은사를 발휘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장년을 맡으면서 장년 사역에 대한 부담이 생겼고, 그런 부담감이 계속 없어지지 않자 과감히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예배 공간으로 사용할 장소를 구입할 돈도 없었고, 그를 따라 개척에 동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비전뿐이었다.

교회를 개척하겠다고는 했지만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던 어느 날, 중고등학교 교사 출신이던 반기성 목사의 사모가 복지관에서 일하는 제자를 만났다. 그 제자는 "개척할 교회 장소를 찾고 있다"는 반 목사 사모의 말에 복지관을 소개했다. 복지관 관장은 반 목사에게 복지관 장소를 사용하는 대신에 복지관에서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지도해 달라고 제안했다. 반 목사가 만나야 하는 아이들이란 소년소녀 가장들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소위 '탈선 청소년' 들이었다. 중고등부 사역에 은사가 있었던 반 목사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 조건을 수락했다.

그해 여름, 반 목사는 복지관에서 후원하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다. 반 목사는 중고등부 사역 때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아이들이 울면서 회개기도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반 목사의 요청에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일어났다.

수련회가 끝난 뒤, 반 목사는 수련회 때 영접한 30여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강동교회' 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뭔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었으나 방법이 없었던 복지관장은 강당을 예배처소로 사용하도록 배려해주었다. 어디서 무엇부터 개척해야 할지 난감했던 반 목사는 그 30명의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라고 믿고 교회를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강동교회는 개척 2년 만에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 반 목사 부부가 열심히 전도하기도 했지만, 아이들 스스로 친구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 아이들이 데려오는 친구들 역시 세상과 가정으로부터 상처받고 버림받은 소위 '결손 가정' 의 아이들이었다.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에게 반 목사 부부는 유일한 영적 버팀목이었던 것이다.

반기성 목사

한 영혼의 소중함은 누구나 똑같다

하나님이 반기성 목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란 세상에서 소위 '탈선 청소년' 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었다. 새벽에 술에 취한 채 반 목사에게 전화하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상 중에 하나였다. 그런 아이들이 반 목사를 찾는 이유는 딱 하나였다. 돈이 떨어지거나, 잘 곳이 없고, 몸이 성하지 않은 경우였다.

반 목사 부부는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이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길로 빠진 이유는 단 하나였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일지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양육하면 분명히 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니, 변하게 만들고 싶었다.

반기성 목사가 아이들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었기 때문이었다. 시골 산동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반기성 목사는 학교 수업료 낼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중퇴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은 학교를 중퇴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자신을 항상 죄인 취급하던 선생님들의 태도가 더 큰 상처였다.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선생님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상처 때문에 반 목사는 한동안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 그가 중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사모를 만난 것을 두고 "아마도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사 출신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모양"이라고 반 목사는 말한다. 어쨌든 그렇게 중학교를 중퇴한 반 목사는 어려서부터 돈을 벌어야만 했고, 24살이 되어서야 검정고시를 치러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 탈선 청소년들을 모아 제자훈련을 시작했던 반기성 목사는 지금은 이들이 20대 초반의 순장이 되어 목회의 동역자가 됐다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제가 39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것도 누가 저한테 목회가 뭐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 아이들을 볼 때도 아이들의 현재 모습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 중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영혼'은 어떤 존재인가? 반 목사와 같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들에 대해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의 목회 자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건물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아이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한 반 목사의 마음은 아이들이 더 잘 알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때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혼내는 반 목사 부부에 대해 반항하기보다는 고마워했다. 지금은 꿈이있는교회의 평신도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오은경 자매(당시 중학교 2학년)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때로 아이들에게 매를 드시면서까지 저희를 바로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매를 맞으며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죠. 저희는 그렇게 혼내줄 부모님도 없었거든요."

아이들을 때리면서 "내 아이라는 심정으로 매를 들었다"고 말하는 반 목사. 하지만 한번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맛이 든 아이들을 완전히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한 명 한 명 붙잡고 멘토 역할을 해가면서 힘에 겹도록 키웠건만, 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어찌 보면 그런 아이들이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신기했다.

그러던 중, 뜻밖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복지관장이 바뀌면서 더 이상 강당을 예배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가 온 것이다. 당장 예배를 드릴 장소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거니와 2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다 들어갈 만한 장소를 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다. 반 목사는 답답했다. 그야말로 절망이었다.

반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손수 천을 끊어다가 "비전 손수건"이라고 글씨를 써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손수건이 눈물로 다 젖을 때까지 예배처소를 위해 기도하자"고 부탁했다.

그렇게 갑자기 예배처소에서 내쫓긴 반 목사와 아이들은 새로운 예배당이 생길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200여 명이나 되던 아이들도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급한 마음에 반 목사는 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노회에서는 "건물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줬다. 바로 그때 반 목사를 도와준 사람들은 청주지역 청소년 선도에 뜻이 있었던 지역 유지들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불신자들이었다. 그들은 반 목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복지관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금을 모아 주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반 목사님이 대신해주는데 이 정도로 도와드리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는 말을 듣는 순간, 반 목사의 마음은 왠지 서글펐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뜻을 갖고 돕기 위해 나서는데, 정작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건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울 생각도 않았던 것이다.

2000년 3월,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반 목사는 건물 지하 고구마 창고를 계약했다. 예배 처소를 놓고 함께 기도하던 아이들은 "하나님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주셨다"며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예배당 꾸미는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왔다. 그때 반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곳이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을 통해 이 나라, 이 청주 땅에 인재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반 목사는 교회의 이름을 '강동교회'에서 '꿈이있는교회'로 바꾸었다. 지하실 고구마 창고를 교회로 바꾸면서 그곳에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에 대한 꿈을 꾸었다.

사람을 키우려면 집중해야 한다

새로 얻은 예배처소까지 따라온 아이들은 불과 20여 명뿐이었다. 그때 어른이라곤 반 목사 부부와 반 목사의 장인, 장모, 그리고 아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40대 부부가 전부였다. 200명이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20명 모이는 교회로 줄어든 것이다. 반 목사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끝까지 남는 아이들이 20여 명밖에 안 되는 것을 보고 많이 낙심이 되더군요. 그나마 꿈이있는교회까지 따라온 아이들은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집중하자!' 고 말이죠."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반 목사는 새로운 목회전략을 구상했다. '떠난 아이들보다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 집중하여 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이었다. 반 목사는 그것을 두 가지 사역으로 구체화했다. 하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것이었다.

"2년 동안 오직 제자훈련 받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모든 것을 집중했죠. 그때 제게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2년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평신도지도자로서 중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었다. 반 목사 부부는 몇몇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아침운동, 식사, 설거지, 빨래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성경 통독, 경건 서적을 읽고 함께 토론하기, 학교공부 체크 등 아이들의 모든 것을 돌보았다.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이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하실 개척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답시고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이웃 주민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작은 교회가 그래도 할 건 다한다"며 아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보태 쓰라고 헌금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사람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2003년 11월 29일은 꿈이있는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3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성전건축을 완공하여, 새 성전에서 처음으로 입당예배를 드린 날이었기 때문이다. 성전건축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꿈이있는교회에 있어서 성전건축은 그야말로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확인해 주는 증거다.

성전건축이 진행된 2년 동안, 꿈이있는교회의 30여 명의 모든 성도들은 그야말로 모든 힘과 기도와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그 모습은 교회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뿐만 아니라 건축현장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였다.

사실 성전건축은 반 목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다. 친구 목사가 우연히 청주 시내에 교회부지가 나온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만 하더라도 반 목사의 마음에는 그저 하나의 소망에 불과했다. 반 목사는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반 목사의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은 반 목사가 가진 소망을 자기들의 소망으로 품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행동에 옮겼다. 한 청년이 자신의 봉급 전액을 "그 땅 주

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헌금한 것이다. 그 청년은 결손가정의 가장이었던 자매였는데, 봉급의 전액을 헌금한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었다.

자매의 마음을 받아들인 반 목사는 종교부지 세 곳 중에 가장 마음에 있던 곳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은 이미 다른 교회가 계약했다는 것이었다. 반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반 목사 자신도 땅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또 "그 땅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감사헌금이 나왔다. 이번엔 장년 성도 한 명이 자신의 봉급 전액을 헌금한 것이었다. 반 목사는 자신이 땅에 대한 마음을 접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신을 움직이게 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은 두 곳 중에 좋은 곳을 구입하기 위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곳 역시 다른 교회가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이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종교부지로 나온 남은 한 곳은 현재는 땅이 없고 앞으로 개천을 보수해서 땅을 만들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반 목사는 이런 상황을 성도들에게 다시 알렸다. '그만 포기하자'는 의도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전에 100% 봉급을 헌금한 청년이 다시 봉급 전액을 헌금했다. 반 목사는 그 헌금 봉투를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자신의 생활비 전액을 바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의 믿음앞에 너무나 부끄러웠다.

결국 반 목사는 세 번째 땅을 계약하기 위해 토지공사로 갔다. 그렇게 해서 처음 땅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실제로 땅을 계약하기까지 딱 1년이 걸렸다.

놀라운 사실은 그 1년 동안 교회가 저축한 헌금이 1500만 원이었고, 그 금액에 반 목사의 주택을 이전하여 받은 돈을 합치고 나니 딱 계약금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처음 땅을 구입하려 했을 때는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교회가 계약금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일을 하신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기적과도 같은 사건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총 공사비가 4억여원이나 되는 성전건축을 전교인이 30여명인, 그것도 청소년이 절반인 교회가 시작해서 2년만에 마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단 한번도 건축헌금 작정서를 내라고 성도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 목사는 성도들에게 '기도 작정서'를 나눠주면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밖에 없다"고 가르쳤다. 또 2년 동안 매일 성도들과 함께 건축현장에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 반 목사가 2년 동안 제자훈련시키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키운 아이들은 그때 그의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 아이들은 건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다.

꼭 필요한 생활비만을 제하고 남은 돈은 모두 건축헌금으로 드리기도 했고, 더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한창 멋부리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놀기 좋아할 나이였는데, 아이들이 2년 동안 교회를 위해 모든 즐거움을 끊은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매일 공사가 끝나는 시간에 건축현장을 찾아가 인부들이 어질러놓은 공사 현장을 깨끗이 청소해 놓았다. 자기 교회를 건축하는 인부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기분 좋게 일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서였다.

이런 아이들의 태도를 본 인부들은 "수 십년 공사판에 다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라며 감동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이런 마음은 인부들의 작업 태도까지 바꾸었다. 인부들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않고 현장에 나와 일을 했다.

"비가 오는데 왜 나왔느냐"는 반 목사의 질문에 인부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교회를 지어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지어진 새성전에서 입당예배를 드리면서 반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앞으로 이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새성전이 지어지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꿈이있는교회는 밀려오는 사람들을 감당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준비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꿈이있는교회의 평신도지도자들을 처음 만나는 새신자들은 그들의 나이 때문에 사뭇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왜냐하면 순장들이 하나같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순장이라며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려한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 리더로서 인정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어느날 반 목사는 나이 많은 성도들이 나이 어린 순장들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반 목사는 순장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한거냐?"며 물었다. 그러자 한 순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다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전 그저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그대로 했을 뿐이예요!"

반기성 목사도 어린 순장들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성도들이 자신에게 심방을 와달라고 전화하면, 우선 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순장이 먼저 가서 심방을 한 뒤, 꼭 필요한 상황이면 반 목사가 같이 또 한번 찾아갔다.

이렇게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순장이 가장 먼저 알고, 가장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도록 만들었다. 그들을 통해 반 목사는 앞으로 꿈이있는교회의 평신도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

"모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전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준비는 시키지도 않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덜컥 리더로 세우잖아요. 전 그렇게 절대로 안할 겁니다. 함부로 직분을 주지 않을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역자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자훈련을 통해 배운 원칙이예요."

2005년부터 꿈이있는교회는 성전건축 때문에 잠시 중단했던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했다. 그동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올해 제자훈련 지원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모델을 보고, 그들을 닮고자 하는 마음에서 훈련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라

꿈이있는교회는 그야말로 꿈이 있는 교회이다. 복지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강동교회 시절과 지하실 고구마창고 교회에서 보낸 3년 동안 반 목사가 꿈꾸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지금 꿈이있는교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아이들은 아무런 경제적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아이들을 통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이있는교회가 걸어온 길을 결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꿈이있는교회와 반기성 목사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분명히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은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고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가진 자만이 지닐 수 있는 자세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분명히 붙잡고 그들을 제자훈련시켜 준비된 평신도지도자로 세운 목회자, 그리고 그와 평생을 함께 하면서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서기 원하는 젊은 평신도들이 있는 꿈이있는교회는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한 교회이다. 꿈이있는교회와 같은 교회가 이 땅 구석구석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꿈꿔본다.

〈박순종 목사〉